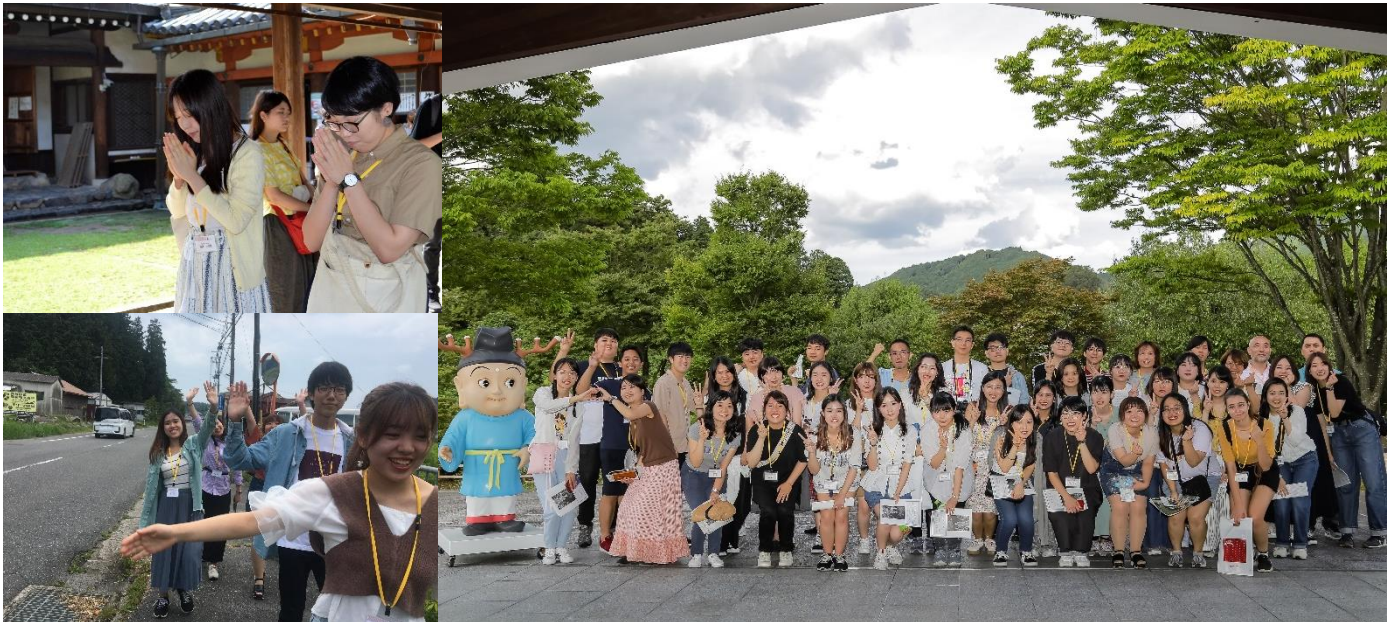


동아시아 서머스쿨 2023 모집 요강

신청 마감: 2023년 6월 30일(금)



머리글

최근에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세계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정도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함에 따라 2020년 이후 세계 각국에서 출입국 제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 각국을 왕래하는 국제 교류의 기회가 사라졌고, 작년의 ‘동아시아 서머스쿨 2022’는 일본에 거주하는 유학생과 대학생들만 초청해서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도 수강생을 초청하여 2011년부터 이어 오고 있는 ‘동아시아 서머스쿨’을 계속 개최함으로써 나라현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살리면서 동아시아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인재는 동아시아 국가의 역사와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상황 등의 교양 과목을 공부하고 각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국경을 초월하여 대화하고 상호 교류를 꾀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일체감을 높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시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23

東アジア・サマースクール
East Asia Summer School



나라현립대학 학장
동아시아 서머스쿨 숙장

아사다 나오키

나라현립대학을 중심으로 나라현의 지역과 시설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동아시아 서머스쿨은 동아시아 국가 및 지역의 젊은이들이 나라에 모여 역사, 문화, 관광, 정치, 환경, 의료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의 영향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유학생과 대학생들만 참가했지만, 금년에는 해외에서도 수강생을 초청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고도 ‘나라’에서 만나고, 배우고, 체험하는 2주간은 수강생 여러분에게 국가 및 지역의 차이를 초월한 이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며, 나라에서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8월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프로그램의 개요

(1) 주최

나라현/나라현립대학

(2) 목적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참가하는 수강생 여러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학습합니다.

【학습 목표】

동아시아의 '공통성'과 '관계성'을 인식하고 폭넓은 교양 과목을 학습한다

(3) 프로그램 기간

2023년 8월 17일(목) ~ 8월 29일(화)의 13일간

(4) 수강 대상

일본 국내외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방 정부 직원(대략 40세 이하)

(5) 주요 커리큘럼(스케줄은 오른쪽 참조)

강의

(90분 × 15회)

역사, 문화, 관광, 정치, 사회 보장,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강사진에 의한 강의를 모든 수강생들이 청강하여 자신의 지식을 넓히고, 그룹 토론과 결과 발표로 이어집니다.

그룹 토론, 발표

(150분 × 5회)

하루의 강의를 끝난 후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수강생들(소그룹)끼리 토론을 벌이고 발표를 합니다.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학습하면서 교류를 심화시켜 나갑니다.

시찰 연수 가정 방문

(2일)

새로운 것을 깨닫기도 하고 나라현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전문 기관이 협력하는 시찰 연수와 일반 가정의 협력을 받아 식사 등의 교류를 하는 가정 방문 체험을 실시합니다.

성과 발표 (프레젠테이션)

소그룹별로 주제를 설정하여 수강 기간 중에 토론한 내용을 성과로서 발표합니다. 발표한 성과물 등은 기록지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합니다.

(6) 참가 비용

무료. 숙박비(조식 포함), 중식비(※자습일 등은 제외), 강의 및 각 지역 시찰 연수, 체험학습 등의 비용은 주최자 부담. 단, 아래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입니다.

- 거주지부터 개최 장소까지(해외 수강생의 경우는 간사이 국제공항까지, 국내 수강생의 경우는 나라 시내의 집합 장소까지)의 경비(왕복)
- 기간 중의 석식비, 휴식일의 중식비, 개인적인 음식비 및 교통비, 기념품 구입비 등

(7) 유의사항

- ①연수 기간 중의 도난, 분실,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주최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복장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복장은 삼가는 등, 연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 ③연수 기간 중에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지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학 홍보에 사용합니다.
- ④예측할 수 없는 문제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해 주최자가 본 사업을 중단하거나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커리큘럼의 일정

1일차	8/17(목)	일본 나라현 도착				집합	오리엔테이션 ①		숙박	
2일차	8/18(금)	오리엔테이션 ②		중식	오리엔테이션 ③·④		개강식	환영 파티	숙박	
3일차	8/19(토)	강의	강의	중식	강의	그룹 토론	성과 발표 작성		숙박	
4일차	8/20(일)	시찰 연수 ①		중식	가정 방문 체험				숙박	
5일차	8/21(월)	강의	강의	중식	강의	그룹 토론	성과 발표 작성		숙박	
6일차	8/22(화)	시찰 연수 ②		중식	시찰 연수 ③				숙박	
7일차	8/23(수)	휴 식 일								숙박
8일차	8/24(목)	강의	강의	중식	강의	그룹 토론	성과 발표 작성		숙박	
9일차	8/25(금)	강의	강의	중식	강의	그룹 토론	성과 발표 작성		숙박	
10일차	8/26(토)	강의	강의	중식	강의	그룹 토론	성과 발표 작성		숙박	
11일차	8/27(일)	성과 발표 작성		중식	성과 발표 작성				숙박	
12일차	8/28(월)	발표 준비, 예행 연습		중식	성과 발표회	리뷰 수료식	송별 파티		숙박	
13일차	8/29(화)	해산(복귀)								



시찰 연수

3. 응모 절차

주최자가 모집을 의뢰한 대학 및 지방 정부에서 나라현립대학 동아시아 서머스쿨 사무국으로 아래의 제출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이메일(서식 파일 첨부)로 제출하십시오.

(1) 모집 인원

약 45명. 수강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주최자가 조정합니다.

(2) 응모 자격

일본 국내외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방 정부 직원(대략 40세 이하)으로 아래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①주최자가 모집을 의뢰한 대학 또는 지방 정부의 추천이 있을 것.
- ②대학 수준의 일본어 강의나 그룹 토론, 보고서 작성에 대응이 가능할 것.
(번역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구두 의사 소통이 가능할 것)
- ③커리큘럼의 모든 일정에 참가할 수 있을 것.

(3) 응모 방법

아래의 ①·②를 모두 일본어로 기재하여 기한 내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십시오.

【응모 서류】

- ①주최자가 모집을 의뢰한 대학 또는 지방 정부의 추천서(양식 1)-Excel
 - ②동아시아 서머스쿨 수강생 후보자 기입 용지(양식 2) - Word
- * 제출 서류는 전형 결과에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마감일

2023년 6월 30일(금) *필착

※사무국에서 수령한 후 3일 이내에 이메일로 접수 확인 통지를 보내 드립니다.

(5) 전형 결과(수강 결정 통지)

2023년 7월 초순까지 추천받은 대학 또는 지방 정부 앞으로 수강 가부를 통지(서면 또는 이메일)해 드립니다.

※연수 실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수강이 결정된 후에는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송부처, 문의처

나라현립대학 동아시아 서머스쿨 사무국
(우)630-8258 나라현 나라시 후나하시초 10번지
전화번호: 0742-22-4978 이메일: summer-school@narapu.ac.jp
근무시간: 월~금 9:30~12:00, 13:00~16:30

(7) 개인 정보의 이용 목적 및 취급

수집한 응모자의 개인 정보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수집한 개인 정보는 주최자가 적절하게 관리합니다.

- 수강자 전형 및 사업 실시를 위하여
- '동아시아 서머스쿨'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연락 등을 위하여
- '동아시아 서머스쿨'에 관련한 통계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동아시아 서머스쿨 2023’ 강사 소개

※가나 순



【교통 및 관광】

이와무라 사토시(나라현립대학 객원교수, 일반재단법인 친환경차량보급기구 회장)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운수성(당시) 입직 후 항공국장, 운수정책국장,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장 등을 거쳐 2004년 국토교통성 사무차관, 2005년 퇴임. 그 후, 재단법인 항만근대화추진협의회 회장, 게이 오기주쿠대학 환경정보학부 교수, 도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주)손해보험재팬 고문, 간사이 전력(주) 고문, 간사이국제공항(주) 이사 회장을 역임. 현재 일반재단법인 친환경차량보급기구 회장, 공익재단법인 교통이콜로지모빌리티재단 회장 등을 겸임.



【문화】

오카모토 아키오(나라현립대학 객원교수, 방송대학 객원교수, 전 가스가타이샤 부신관)

1954년 나라현 출생. 고쿠가쿠인대학 문학부 신도와 졸업. 가스가타이샤에 봉직. 가스가타이샤에서는 특히 옛 제례 의식 부흥에 노력했고, 정례 궁중 가구라 및 가스가와카미야 온마쓰리의 오타비쇼샤 이와 같은 옛 의식과 신찬 등의 고대 의식 부흥, 신사에 전해지는 가구라의 폐절곡 복원, 산준소가구의 부흥 등 많은 제례 행사를 복원하고, 신사 정기 개축 시에는 메이지시대에 사라진 의식을 1995년의 제59차 정기 개축을 통해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복원시켰다. 2016년부터 현직.

<주요 저서 등> ‘야마토 고물 산책’(2000년), ‘야마토 고물 습유’(2010년), ‘신이 주신 도시락’(2015년), ‘야마토의 보물’(2016년), ‘도가 입문’(2018년), ‘일본인이여, 이렇게 되어라’(2020년) 등



【사상】

오구라 기조(교토대학 대학원 교수)

도쿄대학 문학부 독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 학위 취득. 전문은 동아시아 철학, 한국 사상, 한국문화사학론 등. NHK TV와 라디오 ‘한글 강좌’ 강사, 외무성 ‘한일 우정의 해 2005’ 실행위원, ‘한일 교류 축제’ 실행위원, ‘한일 문화 교류 회의’ 위원 등을 역임.

<주요 저서 등> ‘역사 인식의 극복’(2005년), ‘창조하는 동아시아 문명과 문화, 그리고 허무주의’(2011년),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문명>과 <문화>를 통한 고찰’(2012년), ‘새로운 논어’(2013년), ‘한국 사상 전집’(2017년), ‘군도의 문명과 대륙의 문명’(2020년)



【교육】

사토 데이이치(나라현립대학 객원교수, 오비린대학 특별초빙교수)

1941년 출생. 교토대학 법학부 졸업. 박사(정책연구대학원대학). 문부성(당시) 입직 후 문화청 차장, 학술국제국장, 대신관방장 등을 거쳐 1997년에 문부성 사무차관, 2000년 퇴직. 그 후, 같은 해에 일본 학술 진흥회 이사장, 2003년 일본 정부 유네스코 대표부 특명전권대사, 2007년 도쿄 국립 박물관관장 등을 역임하고, 2009년부터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참의·객원교수를 맡음.

<주요 저서 등> ‘문화와 국제법-세계유산 협약 및 무형유산 협약과 문화 다양성 협약’(2008년)



【사회 보장】

시마자키 겐지(국제의료복지대학 및 대학원 교수)

1978년 도쿄대학 교양학부 졸업 후 후생성(당시)에 입직. 후생노동성 보험국 보험과장, 국립 사회보장·인구 문제 연구소 부소장,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객원교수,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를 거쳐 2020년부터 현직. 박사(상학). 나가노현립병원기구 이사, 사회보장심의회 의료부회 위원, 정책연구대학원대학 명예교수 및 객원교수.

<주요 저서 등> ‘일본의 의료-제도와 정책(증보개정판)’(2020년), ‘의료 정책에 대한 재고-국민 개보험의 미래’(2015년), The Path to Universal Health coverage: Experiences and Lessons from Japan for Policy Actions(2013년)



【국제법】

다케우치 유키오(전 외무성 사무차관, 전 대법원 판사, 나라현립대학 객원교수)

나라여자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교토대학 법학부 졸업. 외무성 입직 후 조약국장, 북미국장, 종합 외교정책국장, 주 인도네시아 대사 등을 거쳐 2002년에 외무성사무차관, 2005년 퇴임, 외무성 고문 취임.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연계교수, 대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2013년 대법원 판사로 정년 퇴임. 2014년 욱일대수장을 수상.

<주요 저서 등> '외교 증언록-장기 고성장 시대부터 탈냉전 시대까지의 외교와 안보: 국제 질서를 이끌어 가는 길'(2022년)



【환경】

다나카 마사루(교토대학 명예교수, 모네 숲·마을·바다 연구소 소장)

교토대학대학원 농학연구과 박사 과정 수료. 세이카이구 수산 연구소 연구원, 교토대학대학원 농학연구과 교수, 교토대학 현장과학 교육연구 센터 소장 등을 역임. 2011년 5월부터 동일본 대지진 부흥에 관한 '게센누마 모네만 조사'를 이끌었고, 2014년 4월부터 모네 숲·마을·바다 연구소 소장에 취임. 40년간의 치어 생태 연구를 바탕으로 2003년에는 숲부터 바다에 이르는 다양한 연관성을 밝혀내 자연과 사회의 재생으로 이어지는 통합 학문 '숲·마을·바다 연합학'을 제창. 관련성의 가치관 재생을 바라며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모토 아래 '숲·마을·바다를 연결하는 포럼' 활동을 전국으로 전개.

<주요 저서 등> '숲·마을·바다 연합학의 길'(2008년), '숲·마을·바다 연합학'(2011년), '숲·마을·바다 연합에 의한 아리아케해 재생의 길'(2014년), '숲·마을·바다를 연결한다(1) 생명의 고향, 바다와 함께 살다'(2017년), '숲·마을·바다를 연결한다(2) 여성이 개척하는 생명의 고향, 바다와 함께 살다'(2017년), '생명 문명의 시대'(2018년), '숲·마을·바다를 연결한다(3) 생명이 반짝이는 아리아케해: 분단과 대립을 넘어 협동의 미래를 선택'(2019년), '숲·마을·바다를 연결한다(4) 생명의 순환 숲·마을·바다의 현장에서: 미래 세대에 보내는 메시지 72'(2022년)



【역사】

다나베 이쿠오(공익재단법인 간코지문화재연구소 소장)

게이오기주쿠대학 문학부 졸업, 교토대학 대학원 석사 과정 중퇴, 문화청 미술공예과 주임 문화재 조사관, 도쿄 국립 박물관 학예부 고고과장, 나라 국립 문화재 연구소 헤이조궁터 발굴조사부장,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 이사, 나라 문화재 연구소 소장, 나라현 특별고문, 나라현립대학 특임 교수, 공익재단법인 오사카부문화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 2015년 가을 서훈 때 서보수소장을 수상. <주요 저서 등> '역사 고고학 대사전'(2007년), '고대 도시 2 헤이쿄의 시대'(2010년) 등



【나라】

쓰쓰이 간쇼(도다이지 장로, 도다이지 상원 원주)

1946년 나라현 출생. 1955년 도다이지에 입학하여 고난대학 문학부 사회학과 졸업. 2007년에 도다이지 집사장 및 화업종 종무장, 2013년에 화업종 관장 및 제221세 도다이지 별당에 취임 후, 2019년 5월부터 현직. 독자적인 관점으로 화업종의 가르침과 대불에 관련된 일화를 설명하는 강연도 진행.

<주요 저서 등> '좀 더 알고 싶은 도다이지의 역사'(2010년), '당신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조언(현재를 살다 시리즈)'(2014년) 등



【나라】

나카지마 게이스케(나라현립대학 유라시아 연구 센터 부소장/특임준교수)

오사카외국어대학 외국어학부 졸업. 나라현청 입직 후 현청 기본 방침 '여유' 있는 나라현 만들기, '나라현 신 종합 계획', 나라현 관광 전략 '야마토지 교류 기회 창출 사업', 헤이조 천도 1300년 기념 사업 등을 담당. 신 긴키 창출 스바루 추진 위원회 조사역(1998-1999), 교토 사가예술대학 비상근 강사(2003-2008 겸직), 경제산업성 차관 및 청년 프로젝트 전문가 위원(2016-2017). 2017년부터 현직.

<주요 저서 등> '관광세 정책에 관한 연구'(2004년), '지역 경영의 관점에서 본 헤이조 천도 1300년 기념 사업'(2008년), '또 하나의 관광자원론'(2014년), '이노우에 엔료의 기묘한 민족주의'(2017년), '논집 이노우에 엔료' 공저(2019년), '나라현립대학 유라시아 연구 센터 학술 총서 1~4'(2022년), '동 시리즈 2'(2023년) 등



【정보】

미노 미치히코(이화학 연구소 정보통합본부 본부장, 전 이화학 연구소 이사, 전 교토 대학 부이사)

교토대학 공학부 정보공학과 졸업. 동 대학 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교토대학 공학부 교수, 매사추세츠주립대학 객원연구원, 교토대학 학술정보 미디어 센터 소장, 동 대학 정보 환경 기구 소장 등을 거쳐 현재에 이름. 전문 분야는 정보학, 지능정보학.

<주요 저서 등> ‘정보미디어공학’(1999년), ‘화상처리론: 웹 정보 이해를 위한 기초 지식’(2014년) 등



【관광】

모타니 고스케((주)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주)일본정책투자은행 지역기획부 특임고문)

야마구치현 출생, 56세. 헤이세이 합병 이전의 3,200개 시정촌과 해외 114개국을 자비로 방문하여 지역 특성을 다면적으로 파악. 지역 진흥, 인구 성숙 문제, 관광 진흥 등에 관해 정력적으로 연구, 저술 및 강연. 2012년부터 현직.

<주요 저서 등>

‘디플레이션의 정체’(2010년), ‘사토야마 자본주의’(2013년), ‘관광 입국의 정체’(2016년), ‘완본 유언한 일본 열도 만드는 법’(2018년), ‘세계 거리 지정학 NEXT’(2019년), ‘도쿄탈출론’(2020년), ‘진화하는 사토야마 자본주의’(2020년), ‘일본이 가는 길~성장이란 무엇이었는가?’(2023년, 요로 다케시 씨와의 대담) 등



【예술】

야부우치 사토시(도쿄예술대학 명예교수, 나라 현립 미술관 관장, 미스파리가쿠엔 뷰티&웰니스전문직대학 부학장 교수, 나라현립대학 객원교수 등)

1953년 오사카부 출생. 조각가. 도쿄예술대학 미술학부 조각과 졸업. 동 대학원 미술연구과 수료. 동 대학원 보존복원 기술 연구소에서 불상의 고전 기법과 복원 기술을 연구.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도쿄예술대학 대학원 문화재보존학 교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동 대학 부학장. 재임 중 국보 및 중요 문화재 등 약 100좌의 불상 복원과 조사 연구에 참여. 조각가로서는 불교적 세계관과 동양적 자연관을 ‘동자’의 캐릭터로 표현. 목조 작품 외에 청동 소품과 야의 작품도 다수. 제21회 히라쿠시 덴추 상 수상. 헤이조 천도 1300년을 기념하는 공식 마스코트 캐릭터 ‘센토’를 제작. 2021년부터 현직.

<주요 저서 등> ‘불상 예찬’(2015년), ‘고전 조각 기법 대전’(2021년), ‘부처님의 이력서’(2020년) 등



【관광】

야마다 게이이치로(나라현립대학 객원교수, JTIC.SWISS 대표)

1965년 미에현 출생. ‘세계 최고의 관광 노하우를 각지에 보급하는 권위자’로서 내각부, 국토교통성(관광청), 농림수산성이 인정(2005년)하는 관광 권위자. 스위스 체르마트와 발레 주 정부 등의 관광국에서 일본 및 아시아 대상 마케팅 담당 외에, JTIC.SWISS(일본어 인포메이션 센터: 1992년 설립) 대표, 일본 에코투어리즘협회 이사(2004년)를 역임.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환경 보전과 이활용을 추진해 온 환경 카운슬러(환경성 1996년 사업자 부문, 2003년 시민 부문 등록)이기도 하며, 지역력 창출 어드바이저(2010년 총무성), 지역 활성화 전도사(2015년 내각부 관방), 쿨 재팬 지역 프로듀서(2016년 내각부 관방)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



【국제 정치】

이종원(와세다대학 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 와세다대학 한국학 연구소 소장)

한국 출생.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수료(법학 박사). 전문은 국제정치학, 동아시아 국제관계론. 도호쿠대학 법학부 조교수, 릿쿄대학 법학부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학 객원연구원, 아사히신문 아시아 네트워크 객원연구원, 베이징대학 초빙교수 등을 역임하고 현재에 이름.

<주요 저서 등> ‘동아시아 냉전과 한미일 관계’(1996년, 오히라 마사요시 기념상, 미국 역사가 협의회 외국어 저작상 등을 수상), ‘국제 정치로 보는 동아시아 공동체’(2012년), ‘동아시아 화해의 길’(2016년), ‘전후 한일 관계사’(2017년)

~'동아시아 서머스쿨' 참가자가 보내는 메시지~

동아시아 문화에 대해 여러 나라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가했습니다. 동아시아 서머스쿨에서는 일본에 와 있는 유학생이나 일본어학과 소속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강의와 일상 대화는 모두 일본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 외국어 능력에 자신이 없어도 문제 없이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각국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고,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가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 가기 전 국제 교류의 첫걸음으로서 이 서머스쿨에 참가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리하라 렌게(일본: 나라현립대학)】



제가 서머스쿨에 참가한 이유는 유학을 해 보고 싶었고 그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불안감 때문에 긴장하기도 했지만, 아주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시찰 체험에서는 나라현의 역사, 그리고 나라현과 일본의 장점을 다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머스쿨을 마치고 유학을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서머스쿨에서 체험한 것, 일본과는 다른 습관, 문화, 역사, 그리고 세계에서 보는 일본을 잘 공부하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히가키 마이(일본: 나라대학)】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저는 서머스쿨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이 13일 동안 저는 한중일의 역사와 정치, 전통에 관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저는 각국의 보도에는 사실 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성과 발표에서는 한중일의 불상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는 전에 없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서머스쿨이 끝난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13일 동안 힘들었지만, 아주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 친구가 된 것처럼 앞으로 동아시아의 국제 교류가 더욱 깊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노우에 미호(일본: 기오대학)】



이 서머스쿨을 통해 저는 아주 좋은 살아 있는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살아 있는 지식이란 일문일답식으로 얻어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모든 질문에 대해 전용이 가능하고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서머스쿨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최전선에서 활약하시는 분들로부터 배울 수 있고, 그 학습에 관한 토론의 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 멤버는 동아시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어서 토론의 깊이도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살아 있는 지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머스쿨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다음 기의 수강생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놀랄 것입니다. 【아리카와 슈시(일본: 미야기대학)】



2주간에 걸친 서머스쿨은 저에게 가장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동아시아 각국으로부터 나라에 모여 문화와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듣고, 차이점 등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강의를 마치고 팀원들과 토론하고 발표를 준비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강의 외에도 도다이치 시찰과 가정 방문 체험 등은 정말 좋았습니다. 일본 사람이 사는 집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어가 서투른 제 이야기를 모두가 친절하게 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생겨서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며 교류하고 싶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리리(중국: 상하이사범대학)】



참가자 중심으로 기획된 동아시아 서머스쿨은 여러 사람과 사귀기 쉽고, 귀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자신만의 시간 활용법을 세워 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강의를 들어 보십시오! 여기서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참가해 보십시오! 【김민환(한국: 동양대학교)】



눈 깜짝 할 사이에 13일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귀중한 강의를 듣고, 또 도다이치와 만요 문화관 등의 시찰 체험을 통해 나라의 역사를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교류하고 놀러 다니며 많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를 도와 주고 응원해 준 사람들 덕분에 여름방학을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은 저의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였습니다. 서머스쿨에 참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Tran Thi Thom(베트남: 시즈오카현립대학 유학생)】

